

제 5176호 2000년 11월 25일 창간

homae.co.kr

2022년 6월 8일 수요일 (음력 5월 10일)



“안전운임제 확대하라”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지부 소속 조합원 500여명이 7일 오전 광주 광산구 도천동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뉴스

광주·전남 의원들 상임위 ‘쏠림’ 우려

광주 산자위 3명·전남 농해수위 5명 신청

군공항·국방위·흑산공항·환노위·먹거리 과기정통위 ‘0’

“현안해결·예산확보 위해 상임위 안배·조정 필요”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신청 결과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증소벤처기업위원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상임위 쏠림 현상에 비해 지역현안 해결이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상임위는 꺼리고 있어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광주지역 국회 의원들은 산자위, 전남지역은 농해수위를 가장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자위는 광주 송갑석 윤영덕 이용빈 의원이 1순위로 신청을 했다.

송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산자위를 신청했다.

윤 의원은 전반기 교육위원회,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산자위로 갈아타기를 희망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전남 김승남 서삼석 신정훈 윤재갑 주철현 의원 등 5명이나 신청했다.

전반기 역시 농해수위에 전남지역 5명이나 배정돼 쏠림 현상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전반기 농해수위 였던 이개호 의원은 행정안전위로, 산자위였던 신정훈 의원은 농해수위로 옮기길 희망하고 있다.

산자위와 농해수위가 인기가 좋은 것은 2년이 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지역 현안 해결 성과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외에 광주의 이병훈 조오섭 의원은 국토교통위, 이형석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행안위에 각각 신청했다.

전반기에 이어 전남의 김원이 의원은 보건복지위, 김희재 의원은 국토위, 서동용 의원 교육위를 각각 신청했다.

하지만 지역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방위 위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또 전남도의 핵심 현안이지만 미완인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된 환경 노동위도 지원자가 없다.

특히 미래 먹거리인 첨단과학과 관련된 과기정통위 역시 지원자가 전무하다.

이에 따라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의 시너지를 위해 적절한 상임위 안배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일부 상임위 쏠림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상임위 안배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후반기 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오는 2024년 5월 30일까지, 22대 총선은 2024년 4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김도기 기자

고 흥남순 변호사 회순생가 복원 2면

민주 비대위원장에 우상호 3면

화물연대 파업에 업계 비상 4면

넘어선 가운데 광주는 46.9%, 전남은 46.6% 가격이 폭등했다.
식료품 가격 상승세도 예사롭지 않았다. 밀가루값 상승률의 경우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광주 43.7%, 전남 22.5%를 기록했다. 식용유도 광주 23.4%, 전남 20.7% 각각 가격이 올랐다.

국제 곡물가 급등에 따른 사료값 인상 여파로 돼지고기 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돼지고기 가격은 전월 대비 광주는 29.5%, 전남은 27.5% 가격이 올랐다.
체감률을 반영하는 생활율가지 수는 광주 7.3%, 전남은 7.6%까지 급등했다.

지난달 조사품목 중 전년 동월 대비 광주와 전남에서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등유였다. 주로 난방용으로 쓰이는 등유는 광주 46.9%, 전남 63.9% 가격이 폭등했다.

물가 상승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석유류는 품목별로 경유 46%, 휘발유는 27% 가격이 올랐다. 특히 휘발유 가격을 앞지른 경유는 리터(ℓ)당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이 2000원을

/권형안 기자

광주 전남 5월 강수량 2.9㎜…역대 최저치

올해 5월 광주·전남 강수량은 2.9㎜에 그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광주·전남 강수량은 2.9㎜로 전국에 기상 관측망을 갖춘 1973년 이래 가장 적었다.

강수 일수 역시 3일에 그쳐 역대 하위 2위로 집계됐다. 상대 습도도 62%로 가장 건조했다.

기상청은 올해 5월 강수량이 가장 낮았던 이유로, 상층 대기 진조와 기압골 영향을 꼽았다.

중국에서 중앙 시베리아까지 남북으로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기압마루’가 폭넓게 형성돼 주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쳐거나, 저기압 주변 공기도 모이지 않아 강수량이 적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올해 봄철(3~5월) 강수량은 205.7㎜로 평년(1990년~2020년 30년 평

균) 272.8~344.3㎜ 보다 적었다. 기상 관측 사상 하위 8위에 해당한다.

강수일수 역시 16일에 그쳐 역대 하위 2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지역 평균기온은 13.7도로 평년(12.6도)보다 1.1도 가량 높았다. 지난해와 1998년 봄철 평균기온(13.8도)의 뒤를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다.

특히 3월과 4월은 각각 평년보다 1.6도, 1.5도씩 기온이 높아 봄철 고온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김용범 기자

알림

본보 지역 주제기자 모집

▶ 모집분야 : 여수시

▶ 호남매일

3D 구현 내부, 외부 영상 제공

전원주택·조립식주택 홈인테리어·상업인테리어



철골 공사
조립식주택 목조주택 이동식주택
건축 공장 창고
방부목테라스 축사 토목
인테리어 리모델링



010-6265-0057

